

2012 여수엑스포

날개 단 여수 부동산 시장

신규아파트 최고 2,500만원 웃돈 거래

여수시가 '2012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외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잇따르는 등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엑스포 유치로 전후로 여수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 순천지역까지 집값과 땅값이 덩달아 뛰는 등 '엑스포 효과'가 전남 서남권 부동산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엑스포 유치를 전후로 여수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가 하면 기존 아파트값과 땅값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주건설이 최근 여수시 문수동에 분양한 '문수 피오레'는 27일부터 이틀간 5건이 추가로 계약되면서 이날 현재 90%를 웃도는 분양실적을 거뒀다. 이 아파트는 또 '엑스포 효과'와

서울 등 외지인 급증...기존 집값도 올라 이견희 회장 매입 토지 인근 1년새 3배 ↑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기존층의 프리미엄이 1천만~2천500만원에 달할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기동의 '우림필류'도 27일에만 계약건수가 6건에 달하는 등 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 초기 저조한 분양성적과는 달리 현재 80% 가량 분양이 완료됐으며, 최근에는 500만~1천만원의 '웃돈'까지 형성됐다.

이같은 신규 분양시장의 강세는 기존 아파트의 집값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호동의 금호아파트 145㎡는 올해 초보다 1천500만원 가

량 오른 9천만원에 매매되고 있다. 신기동의 신화아파트 102㎡도 올해 초 6천만원대에서 현재 8천만원까지 올랐다.

여수 신기동의 귀성공인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규 분양단지는 물론, 기존의 집값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현재 여수의 3.3㎡당 집값은 평균 220만원대로 저가인데다 엑스포 유치 전후로 매물까지 급감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땅값도 최근 외지인들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매입한 소라면

사곡리 공항리의 임야는 현재 3.3㎡당 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는 1년 만에 3배 가량 뛴 것이다. 올초엔 울촌산업단지 주변도 현대·기아차그룹의 개발 계획이 알려진 이후 땅값이 크게 올랐으나 매물이 없어 토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투자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엑스포로 인해 도로나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여수의 주택시장도 당분간 호황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주택의 경우 분양 물량이 비교적 적은 데다 땅값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만큼 '묻지마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사랑의 김장 담그기

28일 광주신세계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신세계 직원 및 한국복지재단·한빛여성봉사단 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540kg의 배추김치를 담가, 동일동산 양로원과 무등육아원, 영신원 등 10여개 시설에 전달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28일 광주신세계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신세계 직원 및 한국복지재단·한빛여성봉사단 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540kg의 배추김치를 담가, 동일동산 양로원과 무등육아원, 영신원 등 10여개 시설에 전달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순천 해룡산단 기업 입주 '러시'

순천 해룡대산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와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조립금속업체인 거상중공업㈜, ㈜다우스틸은 29일 본 계약을 하고 해룡대산단 내에 공장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거상중공업은 43억 원을 투입해 해룡산단 내 1만3천700여㎡ 부지에, 다우스틸은 56억 원을 투자해 산단 내 1만1천900여㎡ 부지에 각각 공장을 설립한다.

내년 거상중공업과 다우스틸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1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포스코 마그네슘 관제공장에 이어 올해는 후육강관 및 특수·합금강 제조업체인 메가스틸㈜ 공장을 유치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황 함유량 1.0% 중유

2012년부터 사용금지

환경부는 황함유량이 1.0%인 중유(B-C)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저황유 공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황함유량이 1.0%인 중유 사용지역은 현재 104개 시·군에서 2009년 1월 101개 시·군, 2010년 7월 63개 시·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2012년에는 황함유량이 1.0%인 중유는 전국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한국 브랜드 가치 8,700억 달러

국가 브랜드로서 '한국'의 가치가 '미국'의 11%, 중국의 절반 수준인 8천700억 달러대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10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11조원 가량으로 2위 '현대자동차'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은 28일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07 코리아 브랜드 콘퍼런스'에서 세계 40개국과 국내 주요기업들의 화제로 환산한 브랜드 가치를 발표했다.

국가 브랜드 가치는 제품·서비스 수출액과 관광수입이 국가 브랜드 파워 지수를 곱한 값이며 국가 브랜드 파워 지수는 연구원이 평가한 국가 경쟁력과 세계 65개국에서 이뤄진 국가 브랜드 전략 및 심리적 친근도를 반영해 산출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융권도 '엑스포 특수' 기대

정부예산·입장권 수입 등 관리

光銀, 여수에 지점 신설 추진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자 금융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예산, 입장권 수입 등 자금을 관리할 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2월 여수엑스포 유치통장 발

매이후 2천억원을 판매한 광주은행은 엑스포 유치 성공을 계기로 엑스포와 연계한 여수·신 및 비자카드 상품을 기획중이다. 또 여수지역에 지점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여수시와 여수극동항 권역개발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중이며 최근 광양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여수시 주급고를 맡고 있는 농협도 정부 예산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제조업체 체감경기 급속 냉각

내년 1분기 경기지수 95

최근 고유가, 환율하락 등 경제 불안요인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내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

100)가 '9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분기(118)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로, 2007년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반전한 것이다.

'지난 분기에 비해 경기가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4.5%(전분기 16.7%)인 반면 '호전된다'고 답한 업체는 24.5%(전분기 34.4%)로 집계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남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광주 전역 규제 풀려...부동산경기 살리기엔 역부족

광주시 남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광주 전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광주 남구와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동구·북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뺀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효력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광주 지역은 지난 7월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광산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잇따른 해제 조치로 인해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반면 수도권 전역은 이번에도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경희기자 choice@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광주 등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중경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와 '최근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지난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비투기지역도 6개월간 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단지 지방의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최경희기자 choice@

농협화정동지점 영농현장체험



농협화정동지점(지점장 윤순창) 임직원들이 최근 지매결연마을인 장성군 서삼면 추암마을을 방문, '팜스테이마을 사업' '농산물 직거래 판매사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영농현장체험을 하고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농협화정지점 제공)

Advertisement for 'Hansik Specialties' (한식전문점 돌안채). It features a large red title and text announcing an opening on November 24th.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ocation at 300-3 Nam-gu, Gwangju, and a phone number: 062)234-8118-9.

Advertisement for 'Jeonnam Bank' (전남은행) featuring a 'Foreign Language Camp' (영어캠프). The ad lists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offered by the bank, including language learn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